



공동체 소식



연중 제32주일

하느님, 몸소 뵈으신 살아 있는 들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셨으니,
하느님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더욱 풍성히 내려 주시어,
저희가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11월 기도지향

- 류기범 요셉, 신혜경 마리아 가정
-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외로움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
곁에서 늘 그들 곁에 계심을 깨닫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위령 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
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
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 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Unitas 청년 월례 모임

- 일시 : 11/9(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 새로 발족한 청년 모임에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은 가벼운 산행도 있습니다.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11/15(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어 성당

Gerard Alba 사제서품식

- 일시 : 11/15(토) 10:30am
- 장소 : Cathedral of St. Peter / 409 N. 15th St.

중고등부 불링대회

- 일시 : 11/16(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Park Lanes Center(Renner Rd.)

기타

- 11/16(일)은 연중 제33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느
님께서 교회의 주인인 평신도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겨줍
니다.
- 11/16(일) 중심미사 후, 평협회의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55	215	163/170	67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고영방 스테파노	고평원 프란치스코
	정준구 파비아노	문예나 요안나
차주	안광민 야고보	김준영 요셉
	이우영 가브리엘	이원준 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차호섭 요셉 최선윤 마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이우영 가브리엘, 박희영 카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1/2	86명	343불	2,840불
홍순익, 문석찬, 박동희, 이영민, Gorman, 한윤성, 김원철, 정석원, 박재천, 박희영, 이내익, 이혁구, 이우영(총13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 교회는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미사를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베드로 대성전이 건립되기 이전에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거주하였던 라테라노 대성전은 ‘모든 성당의 어머니요 으뜸’이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얻었습니다. 오늘 축일의 의미는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치의 원천은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합니다.

그림 묵상

라테라노 대성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3년 그리스도교의 박해를 중단하고 밀라노에서 그리스도교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칙서를 발표하고, 324년 라테라노 궁전을 교회에 봉헌했습니다. 이것이 라테라노 대성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당신 몸을 성전이라 하시며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고백성사의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을 맑고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에제 47,1-2.8-9.12 <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이가 구원되리라(따름 노래 “성전 오른편에서”). >

화 답 송 : 

하 느 님 저 의 하 느 님 제 영 혼 이 당 신 을 목 말 라 하 나 이 다

○ 하느님 저의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림나이다. ◎

○ 당신의 힘 영광을 우러러 보옵고자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치울리이다 비계인 듯 기름인 듯 당신으로 저는 흐뭇하고 제 입술 흥겨웁게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

○ 제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저는 마냥 좋으니이다. 제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올 때 이 몸을 바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이다. ◎

제 2 독서 : 1코린 3,9c-11.16-17 <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

복 음 : 요한 2,13-22 <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



“성전으로 가는 길”



성전 앞에 소, 양, 비둘기들이 소란스럽습니다. 이들의 똥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데 이 냄새와 소란스런 모습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환전꾼들과 장사치들은 소리를 치며 사람들을 모읍니다. 기도하는 곳이어야 할 성전이 이렇게 시끄럽고 더러워야!

이런 성전 앞을 지나면 조용하고 경건한 성전에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찬미, 찬양하기 위해 성전에 와서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저만치서 들려오는 소, 양, 비둘기의 울음소리와 날갯짓 소리, 코를 찌르는 오물 냄새.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누가 성전을 이렇게 장터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당시 원로들과 사제들도 이 문제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성전 일대 정화 사업을 시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 후 잠깐만 성전이 좀 조용하고 제대로 성전같이 보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성전 정화를 시도했지만 매번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성전을 이렇듯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끔하게 차려입고 일찍 성전을 향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우리 성전 앞에는 이렇게 냄새나고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냉담 중이거나, 성당을 가지 않으려고 생각했을 때를 돌아보면, 지금 내가 성당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 죄도 많고, 기도 생활이나 신앙생활도 남 보기 부끄러워 성당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그렇게 착한, 보기 좋은 신자가 된 후에 하느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앞에 있는 장사치들과 그들의 소, 양, 비둘기들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되어야 성전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오늘 성전을 말끔히 정리해 주십니다. 그 동안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애써 봤지만 안 됐던 성전 정리를 한순간 끝내십니다. 성전 앞을 깨끗이 치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인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야 되는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성전에 나가는 것을 미룹니다. 나름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조금 더 괜찮아지면 성당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물 냄새 풍기면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끔히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오물들이 적지 않게 성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치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애쓴다고 성당을 못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의 몫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성전 앞을 가로막는 장사치들과 그 심각한 냄새의 오물들을 쓸아내는 소, 양, 비둘기들을 흠여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청하고 활동하실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왜 매일 내 성전 앞에는 이런 것들이 막고 있는 것일까요?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이 다 내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극히 일부가 내가 성전을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 일부마저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없애려고 애써봐야 며칠 후에 다시 똑같아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힘쓰시면 말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 예수회 김동일 신부 -



제 2 편 은총의 생인 성사와 기도

제1장 세례성사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8-20).

【주석】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 : 광야에서 악마가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하느님께 받으셨다고 선포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것이다(주석 성경, 신약, 145 참조).

모든 민족들을 : 이민족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다(상동).

이름으로 : “이름으로”는 세례 받는 이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짐을 뜻한다. 이 성삼위 호칭은 이미 원시 교회에도 알려져 있었다(상동). 2코린 13,13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라고 말한다.

【설명】

세례성사(洗禮聖事)는 어떤 성사인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기왓장을 아무리 정성 들여 간다 해도 거울이 되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깨달음이 많다 한들 지은 죄를 어찌 사할 수 있으며, 비천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세례성사는 다르다.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성사다. 물로 세례를 받는 신자는 원죄와 본죄의 사함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여덟 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 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1베드 3,20-21).

【교회의 가르침】

▶ 주님께서 친히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이 성사를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필수적이다(가톨릭 교회교리서, 1257항).

▶ 교회는 예로부터, 세례는 받지 않았으나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해 왔다. 이러한 혈세(血洗, Baptismus sanguinis)는 화세(火洗, Votum Baptismi)와 마찬가지로 성사가 아니면서도 세례의 효과를 낳는다(가톨릭 교회교리서, 1258항).